

수업·평가 등 개선해 학력 신장한다

전북도교육청, '학력신장 추진단 협의회' 열어 업무 협력 방안 협의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5일에 이어 22일 '학력신장 추진단 협의회'를 열어 올해 학력신장계획 및 업무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

양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의회에는 도내 중등 학력담당 교육전문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17 학력신장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는 참학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을 통한 학력신장 대책이 추진된다. 또 유·초·중·고 학교급별 특색을 감안해 학력신장 정책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학교급별 지원 방안으로는 유치원의 경우 놀이중심·유이중심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가정과 연계한 부모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기본 학습 능력과 기초 문자지도, 독서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기초학력책임제와 성장평가제가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중학교는 기초학력 및 독서쓰기 교육이 확대된다.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수업-평가 개선과 연계를 통한 진로 진학지도가 강화된다.

대입지도의 경우 지원평가에서 수업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수능점수 대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



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 전주시는 제25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2일 용흥초등학교앞 삼천 둔치에서 사회 환경 유관 단체 및 각급 기관 관계자, 시민 등 1,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다.

는 만큼 수업과 평가 개선을 통한 진 반적인 참학력 신장과 진로진학 및 수 능 대비 강화라는 두 트랙으로 접근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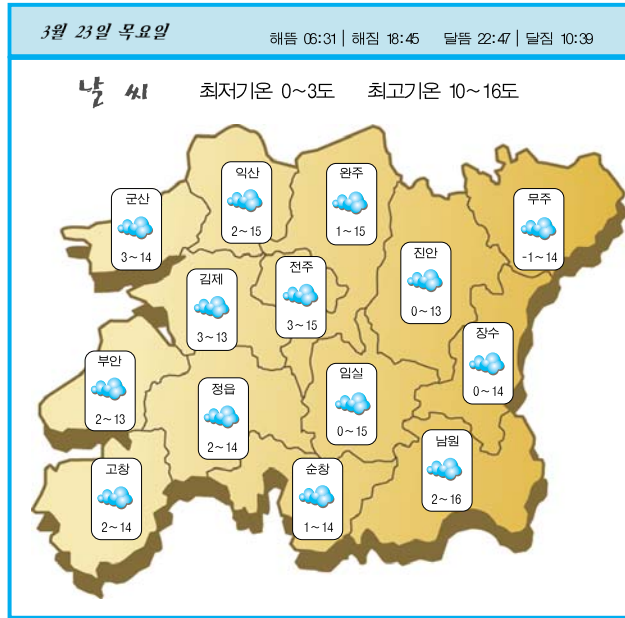
이를 위해 학교 안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의 자율성·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학교지원과 학교업무경감을 위해 도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의 학력 정책 기획·조정·협업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017년은 수업내용과 평가혁신을 주요 정책의제로 추진하는 만큼 현재 추진중인 성장평가의 현장 정착도를 높이고 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수업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참학력과 학력신장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도 인식하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에서도 학력신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 '면접 강화'

전북도교육청이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면접을 강화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승진점수만 획득하면 승진하는 현행 제도와 형식적인 면접고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접고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초·중등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면접고사는 자료 수집단계인 '사전조사'와 실제 '면접고사'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사전조사는 전화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적인 의견수렴, 현장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전화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전화조사 결과 문제가 제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면접고사 대상자 중에서 사전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전년도 면접고사 불합격자는 심층면접 대상자로 분류된다.

심층면접은 총 2회까지 가능하며 이후 면접고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번엔 강화한 교감 면접고사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4월초 교(원)감 자격연수 자명 예정인원의 110%가 발표되며 사전조사, 면접고사 등을 거쳐 6월말 교(원)감 자격 연수대상자가 확정 발표된다.

/정해은기자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고속·시외버스 간이정류소 개선

전주시, U-20월드컵 손님맞이 위한 대중교통 분야 환경정비 및 수송·교통대책 추진

FIFA U-20월드컵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시가 경기가 열리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고속·시외버스 간이정류소를 대화전까 지 산뜻하게 바꾸기로 했다.

또한, 대회기간 주말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과 국·내외 관람객들을 위해 1994번 특별노선과 명품시내버스도 운행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U-20월드컵 손님맞이를 위한 대중교통 분야 환경정비 및 수송·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U-20월드컵 대비 교통 분야 대책은 △순환맞이 관문(시의·고속버스터미널·전주역·간이정류소 9개소 등) 환경정비 추진 △시내버스·택시 운수

종사자 친절도 제고 △대중교통수단·시설을 이용한 홍보 △특별노선 및 명품시내버스 운행 등 시내버스 수송대책 마련 △인사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장 및 교통소통대책 마련 등이 다.

먼저, 시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주에 첫발을 내딛는 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전주역, 9개 간이정류소 등 12개의 화장실 청결상태를 점검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서울(남부터미널)행과 익산·군산행 고속·시외버스가 1일 316회 운행되는 월드컵경기장 인근 '호남제일문 고속·시외버스 간이정류소'는 대회 개막 전까지 시외·고속버스 탑승을 위한 버스배이 및 승강장 설치,

인도장비, 지중화자업 등의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또 월드컵경기장 내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는 지붕 없는 미술관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한 개성 넘치는 버스 승강장으로 조성,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주만의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과 타 지역 관람객이 버스를 타고 U-20월드컵 경기를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주말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휴일 갑차편 시내버스 20대를 활용해 경기시간 전후 시내버스 특별노선(1994번)을 월드컵경기장~시의·고속버스터미널~전북대학교~한옥마을~평화동 코스로 집중 배차·운영하기로 했다.

/김민근기자

도교육청, 고위공직자·학교장 2425명 청렴도평가·부패위험도 진단 실시

전북도교육청이 4월 고위공직자와 학교장 등 총 2425명에 대한 청렴도평가와 부패위험도 진단을 실시한다.

청렴도와 부패위험도 진단은 청렴정책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실시해 그 결과를 교육감과 개인에게 통보해 오고 있다.

평가 대상은 5급 이상 156명, 공기업 유초중고특수학교장 842명, 공립 교감 689명, 행정실장 649명, 교장과 교감 승진대상자 109명 등이다.

부패위험성 진단은 고위직위를 진단하는 것으로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조직개방성,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연고주의 정도를 설문조사적도를 통해 진단하며 업무환경 부패위

험도는 청탁의 위험성, 재량의 정도, 이해관계자 위험성을 평가한다.

개인 청렴도 평가는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평가단이 참여하게 되며 내부 평가는 상위, 동료, 하위직원들로 구성된다. 학교장은 동료와 하위평가단만, 행정실장은 외부평가단으로만 구성된다. 외부평가단에는 전문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계약업체가 참여한다.

또 국제와 지방세 체납, 도로교통법 위반, 행정강령 위반의 처분, 청렴교육 이수 여부 등을 파악하는 계량지표 평가도 포함된다.

/정해은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내용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